

말레이시아 국가신용도 평가리포트

2017. 8.

I. 일반개황	1
II. 경제동향	2
III. 정치·사회동향	9
IV. 국제신인도	12
V. 종합의견	14

I. 일반개황

면적	330천 Km ²	G D P	2,964억 달러 (2016년)
인구	31.7백만 명 (2016년)	1 인 당 GDP	9,360달러 (2016년)
정치체제	연방형 입헌군주제	통화단위	Ringgit
대외정책	비동맹 중립	환율(달러당)	4.14 (2016년 평균)

- 말레이시아는 말레이 반도 남부에 위치한 서말레이시아(구 말라야연방)와 보르네오 섬 북서부의 동말레이시아로 이루어져 있음. 서말레이시아는 태국, 싱가포르와 인접해 있으며, 동말레이시아는 남쪽으로 인도네시아령인 보르네오 섬과 국경을 이루고 있음.
- 1957년 8월 영국으로부터 독립하여 말라야 연방을 수립함. 이후 1963년 9월 사라와크(Sarawak) 및 사바(Sabah)와 싱가포르(1965년 분리 독립) 등 영국령이 합류하여 말레이시아 연방이 결성됨. 현재 13개 주와 3개 연방령으로 운영되고 있음.
- 입헌군주제로 국왕은 9개 주의 통치자인 술탄(Sultan) 중에서 5년 임기로 선출되며, 총리 및 내각을 임명할 권리와 군 최고 사령관으로 통솔권을 가짐. 내각은 실질적인 행정권을 가지고 의회를 책임지고 있으며, 내각의 수장인 총리는 하원 다수당의 당수가 맡음.
- 원유, 천연가스, 천연고무, 팜오일 등 천연자원이 풍부하고 전기전자 제품을 중심으로 공업화에 성공한 중소득국임. 향후 2020년까지 고소득국 진입을 위하여, 제11차 5개년('16~'20년) 경제개발계획과 함께 경제·정부변화 프로그램 등의 신경제 모델을 적극 추진 중임.

II. 경제동향

1. 국내경제

<표 1> 주요 국내경제 지표

단위: %

구 분	2013	2014	2015	2016	2017 ^f
경제성장률	4.7	6.0	5.0	4.2	4.5
소비자물가상승률	2.1	3.1	2.1	2.1	2.7
재정수지 / GDP	-4.1	-2.7	-2.8	-3.0	-3.0

자료: IMF.

□ 주요 수출품의 가격 회복 지연으로 경제성장세 둔화

- 2013~15년 중 경제성장률은 민간소비 증가와 대규모 인프라 투자로 연평균 5%성장률을 유지하였으나, 2016년에는 주요 수출품목*의 가격 하락 및 수출물량 감소, 관광수입 감소로 경상수지 적자폭이 확대되며 성장률이 4%대로 하락함.

* 2016년 기준 : 전기전자제품(총 수출 대비 30.8%), 석유 및 천연가스(14%)

- 미국과 이란이 주도하는 원유 과잉 공급, 글로벌 경제 성장률 둔화에 따른 에너지 수요 감소, 미 달러 강세 등으로 국제유가 상승폭이 제한됨에 따라 에너지 수출가격 회복이 지연되고 있음.
- 2017년에도 주요 수출대상국들*의 수입시장 다변화 노력, 말레이시아 자체 소비량 증가에 따른 에너지 수출물량 감소로 4%대의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함.

* 2016년 주요 수출국 : 싱가포르(1위), 중국(2위), 미국(3위), 일본(4위)

- 2017년 1사분기에는 대규모 제조업 프로젝트들이 개시되며 투자지출이 확대되고 지속적인 민간소비지출이 경제성장률을 이끌어 5.2%의 성장

를을 시현했으나 주요수출품인 전기전자제품의 대외수요가 부진하고 에너지 가격 등락이 반복되며 경제성장률이 4.5%에 머물 것으로 전망됨.

□ 유류가 인상, 수입물가 상승 등으로 물가상승률 상향 전망

- 물가상승률은 상품 및 식료품 국제가격 상승과 정부의 연료비 보조금 축소 등으로 상승세를 보이다 2015년부터 에너지, 원자재 가격 하락에 따른 수입물가 하락 영향으로 2%대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.
- 2017년에는 식료품 및 주택가격 상승, 유류가 인상*, 링깃화 환율 상승**으로 인한 수입물가 상승 영향으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됨.
 - * OPEC 감산 협정 발효 영향으로 17년 1/4분기 휘발유가격이 2.23링깃(전년동기 1.73링깃)으로 급등
 - ** 달러대비 링깃 평균환율 : 3.91(2015년) → 4.15(2016년) → 4.49(2017년 예상)

□ 정부의 재정건전성 조치에도 불구, 만성적인 재정적자 지속

- 말레이시아는 경기부양과 대규모 인프라 구축을 위한 정부지출, 비효율적인 조세징수 등으로 만성적인 재정적자를 겪고 있음.
- 특히, 2013년 유가급락에 따른 세수 감소로 GDP 대비 재정수지 적자 비중이 4.1%로 확대됐으나 2014년부터 재정적자 감축을 위한 일련의 조치를 통해 재정수지 적자를 3%내외로 관리 중임.
 - 정부는 일부 연료보조금 폐지('14년 12월), 상품·서비스세(GST; Goods and Services Tax) 도입('15년 4월) 등의 세제개편과 기업민영화 추진 등 공공부분의 정부투자 축소 등을 통해 재정적자에 대응하고 있음.

2. 경제 구조 및 정책

가. 구조적 취약성

□ 에너지 관련 산업에 대한 높은 의존도로 가격 변동에 민감

- 말레이시아는 원유, 천연가스 등 원자재 수출에 의존하던 경제구조에서 전자제품 중심의 제조업과 관광업 등 서비스업으로 경제구조를 다각화

하였으나, 중앙정부의 재정수입*은 여전히 석유 등 에너지 관련 산업에 크게 의존하고 있음.

* 정부 재정수입원의 약 20%가 국영 석유회사인 Petronas에 의존

□ 만성적인 재정수지 적자에 따른 좁은 재정 운용폭

○ 세수 부족, 보조금 지급에 따른 정부지출로 재정수지 적자가 2013년 GDP의 4%를 상회하였고, 비효율적인 조세징수 시스템의 한계로 인해 재정운용폭이 좁은 실정이었음.

○ 이에 정부는 소비세 도입 등 조세제도 개편*과 연료비 보조금 축소 등을 통하여 세수 확대를 도모하여 재정수지 적자를 3% 수준으로 관리하고 있으나 지속적인 인프라 투자 및 국제유가 회복 지연으로 당분간 재정적자는 현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됨.

* '15. 4월부터 기존 서비스·판매세(Service and Sales Tax: SST)를 폐지하고 모든 상품과 서비스 산업에 대하여 6%의 상품·서비스세(Goods and Services Tax: GST)를 부과하도록 조세제도를 개편

□ 국제금융시장환경 변화에 민감한 금융구조

○ 말레이시아는 외국인의 채권보유 비중이 높고 외국자본 유출시 유동성 위기 우려가 있음. 특히, 최근 미국의 금리인상 가능성으로 외국인 투자자금이 유출되며 링깃화 가치 하락이 지속되고 있음.

- 정부는 링깃화 가치 하락을 방어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외환시장에 개입하여 2016년 12월에 외국환관리정책*을 발표하였음.

* 역외선물환 거래(NDF)중단, 상품 수출대금의 75%를 링깃화로 환전하여 적립할 의무, 환헷지 거래금액을 제한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.

○ GDP 대비 총외채잔액이 56%로 미국이 금리를 인상할 경우 외채상환 부담이 증가할 우려가 있고, 가계부채가 GDP의 88%로 말레이시아 국내 금리가 동반 상승할 경우 가계의 가처분소득이 감소해 민간 소비가 위축될 우려가 있음.

나. 성장 잠재력

□ 주변 동남아 국가에 비해 우수한 인프라 환경 구축

- 정부의 일관된 인프라개발 정책으로 주변 동남아 국가에 비해 도로, 항만, 통신시설 등에서 양질의 인프라를 구축
 - 2016년 World Economic Forum의 'Global Competitiveness Report'에 따르면 말레이시아는 인프라 부문에 있어 전체 138개국 중 24위를 기록 중이며, 부문별로는 철도(15위), 도로(20위), 항로(20위) 및 전력공급(39위)임.
- 또한, 기업의 자금 조달, 자유로운 과실송금 보장 등 제반 기업경영 여건이 양호해 외국인 투자 유치에 유리함.
 - 세계은행그룹 국제금융공사(IFC)의 2016년 기업경영 여건(Doing Business) 종합순위는 23위임.

□ 원유, 천연가스 등 풍부한 자원 보유

- 말레이시아는 토지의 50% 이상이 산림으로 이루어져 있으며, 천연 고무와 팜오일이 풍부하여 세계 주요 자원수출국 지위를 획득함. 또한, 원유, 천연가스 등의 에너지자원과 주석 등 다양한 광물자원을 보유하고 있어 에너지 및 자원 개발에 유리함.
 - 2017년 3월말 기준 원유의 확인 매장량(36억 배럴)이 아시아 국가 중 중국, 인도, 베트남에 이어 4위이며, 생산량(70.5만 b/d) 기준으로 중국, 인도네시아, 인도에 이어 아시아 국가 중 4위임. 액화천연가스(LNG)의 경우 카타르와 호주에 이어 세계 3위 수출국임.
- 팜오일의 경우 세계 최대 수출국이자 인도네시아에 이어 세계 2위 생산국임. 최근에는 화장품 및 바이오디젤의 주원료로 주목을 받으며 외국기업의 투자가 증가하고 있음.

다. 정책성과

□ 중장기적인 경제개발 정책에 기반한 안정적인 경제성장 달성

- 말레이시아는 1970~90년 신경제 정책(NEP : New Economic Policy), 1991~2000년 국가개발 정책(NDP : National Development Policy), 2001~10년 국가비전 정책(NVP : National Vision Policy) 등 정부 주도의 중장기적인 경제개발 정책을 추진함.
 - 이를 통해, 고무 등 1차 자원 수출과 농업 생산에 의존하던 경제구조에서 탈피하고 전기, 전자산업과 함께 풍부한 자연자원을 활용한 제조업 부문을 육성하여 4%대의 안정적인 경제성장을 이룩함.
- 아울러, 말레이시아 정부는 2016년에서 2020년까지의 11차 개발계획(11th Malaysia Plan)과 함께 정부변화프로그램(GTP : Government Transformation Programme) 및 경제변화프로그램(ETP : Economic Transformation Programme) 등 신경제 모델을 수립하여 적극적으로 추진 중임.
 - 2020년까지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도모하고 중소득국에서 고소득국(1인당 GNI 15,000달러 진입)으로 발돋움하기 위하여 노력 중임.
 - 특히, 경제변화 프로그램은 민간투자를 중심으로 석유·가스, 팜오일 산업, 금융서비스, 전기전자, 관광업, 민간의료서비스 등 12개 부문을 육성하여 경제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표로 함.
-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해 기존 세제 인센티브*를 유지하는 한편, 2015년에는 제조업 고도화, 투자 기업들의 역내 거점 유치에 위한 세제혜택 개편안 등 신규 인센티브 지침을 발표했음.
 - * 관광업 등에 대해 5년간 소득세를 감면(소득액의 30%에 대해서만 과세)하고, 투자세 공제를 받는 제조업, 첨단기술 산업 등에 대해 5년 내에 발생한 자본 지출액에 대해 60%의 공제혜택 부여 등
 - 2016년에는 지역발전 예산을 책정하고 지정된 경제개발지구에 입주하거나 투자하는 기업에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음.

- 또한 정부는 고소득자의 소득세율 인상, 양도소득세(RPGT : real-property gains tax)인상 등으로 확보한 세수를 취약계층의 경제 활동에 지원하여 계층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.

□ 양자간 및 ASEAN FTA, TPP, RCEP 등을 통해 시장개방 가속화

- 일본, 파키스탄, 인도 등 총 7개 국가와 양자간 FTA를 체결하였으며, ASEAN* 차원의 다자간 FTA에도 가입하였음.

* 동남아시아국가연합(Association for South-East Asian Nations)으로 1967년 8월 설립되어 현재 필리핀, 싱가포르, 인도네시아, 베트남 등 총 10개국으로 구성

- EU와는 2015년 12월 이후 FTA 협상을 재개하였으며, 2016년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*(TPP : Trans-Pacific Partnership)의 비준 및 서명을 완료하였고,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**(RCEP :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)도 협상 중에 있음.

* 미국이 주도한 아시아·태평양 12개국간 자유무역 협력체(전 세계 GDP의 약 40% 차지)로 경제통합과 자유무역 확대가 기대되고 있으나, 2017년 1월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탈퇴 행정명령에 서명함에 따라 회원국간 향방에 대해 논의 중임.

** 아세안 10개국과 한·중·일 등 총 16개국이 참여하는 다자간 FTA임.

- 한편 말레이시아는 2010년 아세안 상품무역협정*(ASEAN Trade in Goods Agreement: ATIGA)체결을 통해 관세 인하, 비관세장벽 완화, 원산지 규정과 기술표준 개정 등 역내 무역규모 확대를 도모하고 있음.

* 체결국 : 싱가포르, 브루나이, 태국, 인도네시아, 말레이시아, 필리핀

3. 대외거래

□ 에너지 수출 감소로 경상수지 흑자가 지속적으로 축소

- 2012년 이후 서비스 및 소득수지 적자폭이 확대되며 경상수지 흑자규모가 감소하고 있으나, 큰 폭의 상품수지 흑자에 힘입어 2013~14년 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 비중은 각각 3.5% 및 4.4%를 기록함.

- 그러나, 2015년에는 서비스 및 소득수지 적자 규모 확대와 함께 원유 등 주요 수출품 가격 하락 등으로 인해, 경상수지 흑자폭이 축소되며 동 비중이 3.0%을 기록함.
- 2016년에도 원유 등 주요 수출품 가격 회복이 지연되고, 국내 에너지 소비량 증가로 수출물량을 조절하여 경상수지 흑자폭 감소세를 이어갔으며 2017년에도 비슷한 수준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됨.

□ 경상수지 흑자폭 감소, 환율 급등 등으로 외환보유액 감소세 지속

- 외환보유액은 경상수지 흑자와 외국인직접투자 유입으로 2011년까지 증가세를 보였음. 그러나 2012년 이후 경상수지 흑자폭 감소, 환율 방어를 위한 중앙은행의 외환시장 개입, 외국자본 이탈 등으로 외환보유액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음.

※ 외환보유액 : (2011) 1,317.80억 달러 → (2012) 1,377.84억 달러 → (2013) 1,334.44억 달러

<표 2>

주요 대외거래 지표

단위: 백만 달러, %

구 분	2013	2014	2015	2016	2017 ^f
경 상 수 지	11,262	14,835	8,874	6,067	5,530
경 상 수 지 / GDP	3.5	4.4	3.0	2.0	1.8
상 품 수 지	30,577	34,605	28,051	25,545	26,849
수 출	202,285	207,483	175,731	165,266	180,717
수 입	171,708	172,878	147,680	139,721	153,868
외 환 보 유 액	133,444	114,571	93,979	93,121	93,879
총 외 채 잔 액	168,492	159,887	151,267	166,718	169,814
총외채잔액/GDP	52.1	47.3	51.1	56.3	54.8
D. S. R.	17.3	17.9	21.3	23.8	24.0

자료: IMF, IFS, OECD 및 EIU.

- 최근 달러 대비 링깃화 환율 상승이 지속되고 석탄 화력발전소 건설 등 대규모 인프라 프로젝트 진행이 지연되며 외국인투자액이 감소하여 외환보유액이 2013년 1,334억 달러에서 2016년 12월 현재 931억 달러로 2013년 이후 꾸준히 감소함.
- 외국인 보유 채권비중이 높아 달러강세 및 금리인상 시 투자자들의 자본유출 우려가 있으나 수출경기가 점진적인 회복세를 보이고 있어 2017년에도 외환보유액은 현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됨.

□ GDP 대비 총외채잔액 및 D.S.R. 각각 56.3%, 23.8%로 다소 높음

- 2016년 GDP 대비 총외채잔액은 56.3%로 외채원리금상환비율(D.S.R)도 외채 증가와 수출 감소로 23.8%까지 상승하는 등 높은 수준을 기록함.

Ⅲ. 정치·사회동향

1. 정치동향

□ 연립여당 국민전선(BN)의 정치적 기반 확고

- 통합말레이기구(United Malays National Organization: UMNO) 중심의 14개 정당연합인 국민전선(Barisan Nasional: BN)은 1957년 말레이시아가 영국으로부터 독립한 이후 현재까지 장기 집권중임.
- 2009년 4월 제5대 총리인 압둘라 바다위(Abdullah Badawi)가 사임하고 나집 라작(Najib Razak) 부총리가 제6대 총리로 취임하였음. 2013년 5월 총선 시 집권연합 국민전선의 부진 위기설이 있었으나, 집권당 UMNO의 당권을 장악하며 재선에 성공 후 비교적 안정적인 정권을 유지해 옴.
- 특히, 총선 결과로 여당연합인 국민전선이 과반 의석(132/222석) 확보에 성공함에 따라 여당의 정치적 기반이 강화됨.
- ※ '15.6월 야권연합인 국민연합(Pakatan Rakyat: PR)을 구성하고 있는 주요 정당간 이견이 격화되어 연합 해체를 공식 선언함. 이에 여당의 정치 결속력이 상대적으로 더욱 강화

□ 불법자금 수수 의혹에도 불구하고, 연립여당의 보궐선거 승리

- 나집 라작 총리는 말레이시아 국영 투자회사인 1MDB*(1Malaysia Development Berhad)로부터 불법자금(약 7억 달러)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정권신뢰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음.
- * 해외 자원개발 실패와 불투명한 자금운용 등으로 부채규모가 약 420억 링깃(약 115억 달러)으로 추산
- 2014년부터 1MDB의 채무위기설이 대두되었고, 2016년 4월에는 18억 달러 규모의 채권에 대한 이자를 지불하지 못하여 디폴트가 발생함.
- 이에 말레이시아 정부는 1MDB를 해산하고 부채청산을 위해 '16년 4월 부디만 위원회를 발족했으며, 국제공조수사를 진행하여 관련 금융기관의 영업중단, 인가취소 및 폐쇄 명령, 벌금부과, 관련 자산 압류 등을 시행 중임
- 말레이시아 국회 공공회계위원회(PAC)는 1MDB가 부실경영을 저질렀다고 판단했지만 나집 총리에게 자금 유용의 책임을 묻지 않은 채 조사를 마무리했으며 사법당국은 무혐의로 종결
- 자금 스캔들에도 불구하고 말레이계 말레이시아 지지세력 결합으로 나집 라작 총리가 이끄는 연립여당 국민전선(BN)이 보궐선거에서 승리하며 집권여당의 입지를 확고히 함.
- 16.6월 치러진 보궐선거의 개표결과 연립여당 후보가 야당후보와 2배 이상의 득표율 격차를 보이며 선거에 승리

2. 사회동향

□ 정부의 엄격한 사회통제에 힘입어 양호한 사회안정도 유지

- 말레이계는 정치권을 주도하고, 중국계는 상권 중심으로 활동하는 등 민족간 역할 분담이 상대적으로 잘 이루어지고 있음.
- 또한, 정부의 엄격한 사회통제로 인해 단기간 내 대규모 소요사태로 인한 사회불안 발생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사료됨.

□ 말레이계 우대정책에 따른 민족간 갈등요소 잠재

- 민족 구성(말레이계 50%, 중국계 23%, 인도계 7%)이 복잡하고, 중국계에 부가 편중되어 있음.
- 정부는 1969년 부의 편중으로 인해 말레이계와 중국계 간 유혈사태가 발생하자 1970년대부터 부모 중 1인 이상이 말레이시아 국적을 지닌 말레이계를 우대하는 정책*(부미푸트라)을 실시하고 있음.
- * 기업지분 중 부미푸트라외의 필수 지분율을 30%로 확대, 공공기관 채용 시 말레이계 우대, 장학금 지원 등
- 동 정책으로 말레이계의 소득과 경제적 지위는 많이 향상되었으나, 민족간 불평등 해소를 위한 말레이계 우대정책이 오히려 민족간 갈등을 심화시키고 있음.
- 특히 2020년까지 고소득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중국계 자본이 필요한 상황이나, 중국계가 싱가포르 등지로 이주하는 등 소수계의 불만이 큰 상황임.
- 그러나, 여당의 주요 지지층인 말레이계의 반발로 급격한 정책수정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사료됨.

3. 국제관계

□ 비동맹, 온건 중립 대외관계 노선 추구

- ASEAN을 중심으로 지역협력 강화에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, 이슬람협력기구(Organisation of the Islamic Conference: OIC) 회원으로 이슬람국가와도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음.
- 또한, 비동맹운동회의(Non-Aligned Movement: NAM)의 의장직을 수행하는 등 비동맹 노선을 확고히 견지해 오고 있음.

□ 중국, 미국 등과의 협력관계 유지 노력

- 중국, 싱가포르 등 주변 국가와의 경제, 정치적 협력관계 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음.

- 중국과는 1974년 ASEAN 국가 중 가장 먼저 수교를 맺었으며, 인구의 24%가 중국계인 점을 고려하여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음.
- 미국과는 마하티르 총리 이후 말레이시아가 반테러 활동과 지역 안정에 의견을 같이 하는 등 관계가 개선된 이후 경제적 우호관계를 유지하고 있음.

□ 일본 등과 FTA 체결을 통한 경제협력 강화

- 세계 경제의 지역주의에 적극 대응하고자 일본('06년), 파키스탄('08년), 뉴질랜드('10년), 인도('11년), 칠레('12년), 호주('13년), 터키('14년) 등과 FTA를 체결하여 경제협력 강화에 노력하고 있음.
- 동방정책 모델로서 일본을 설정하고 있으며, 경제협력 강화를 통한 일본의 자본, 기술 획득을 위하여 우호관계를 지속 유지하고 있음.
- 또한, EU와의 FTA 협상이 재개되었으며, 한국, 대만, 이집트 등과의 FTA도 검토하고 있는 등 시장개방 가속화 기조를 지속할 계획임.

IV. 국제신인도

1. 외채상환태도

□ 외채상환능력은 비교적 양호하나 외채지표 악화로 모니터링 필요

- 2013년 이후 총외채규모가 외환보유액을 넘어서며 2016년말 기준 총외채규모 및 외환보유액이 각각 1,667억 달러, 931억 달러를 기록 중임.
- 2016년말 기준 중장기 외채가 총외채의 약 72.3%를 차지하고 있어 단기적으로 외채상환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임.
- 그러나, 총수출 대비 총외채잔액 비중이 2013년 64.9%에서 2016년 79.5%로 확대되었고, GDP 대비 총외채 잔액 비중도 56.3%로 증가함. 또한, D.S.R도 점진적으로 증가세를 시현하며 23.8%를 기록 중으로 외채지표가 악화되고 있어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함.

2. 국제시장평가

- 환율 상승 등 금융시장 불안, 최근 정권신뢰도 하락 등에도 불구하고, 현재까지 주요 신용기관 모두 기존 신용등급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음.

<표 3> 주요 기관별 평가등급

평가기관	최근 평가 등급		종전 평가 등급	
당 행	B2(Stable)	(2017. 8.)	B2(Stable)	(2016. 5.)
OECD	2등급	(2017. 6.)	2등급	(2015. 6.)
S&P	A-(Stable)	(2016.11.)	A-(Stable)	(2016. 3.)
Moody's	A3(Stable)	(2016. 1.)	A3(Stable)	(2016. 1.)
Fitch	A-(Stable)	(2016. 8.)	A-(Stable)	(2016. 2.)

3. 우리나라와의 관계

- 국교수립: 1960년 2월 23일(북한과는 1973년 6월 2일)
- 주요협정: 무역협정(1962년), 문화협정(1965년), 항공협정(1967년), 이종과세방지협정(1983년), 사증면제협정(1983년), 과학기술협력협정(1985년), 투자보장협정(1988년), 해운협정(1988년), 자원협력양해각서(1995년), 형사사법공조조약(2013년), 범죄인도조약(2015년)

- 교역규모 및 해외직접투자 현황

<표 4> 한·말레이시아 교역 규모

단위: 백만 달러

구 분	2013	2014	2015	2016	주요품목
수 출	8,588	7,583	7,735	7,533	석유제품, 반도체, 평판디스플레이, 철강관, 자동차, 집적회로
수 입	11,096	11,098	8,609	7,508	천연가스, 석유제품, 반도체, 원유
합 계	19,684	18,681	16,344	3,286	-

자료: 한국무역협회.

V. 종합 의견

- 2012~15년 중 경제성장률은 민간소비 활성화, 정부의 대규모 인프라개발 투자 등에 힘입어 연평균 5%대를 상회하였음. 그러나 2016년에는 석유 및 원자재 가격 회복의 지연과 국내 소비량 증가로 수출물량을 조절하며 경상수지 흑자폭이 감소함에 따라 경제성장률이 4.2%로 하락하였음. 2017년 제조업과 서비스업 분야의 경기회복과 에너지 가격 회복세에 대한 기대로 성장률은 소폭 상승할 것으로 예상됨.
- 정부의 소비세 도입, 연료비 보조금 축소 등 재정건전성 조치에도 불구하고 인프라 개발투자, 주 수입원인 에너지 수출가격 하락으로 만성적인 재정 적자를 기록 중임.
- 경제구조는 만성적 재정적자와 천연자원에 대한 높은 무역의존도 등의 취약점을 가지고 있으나, 정부 주도의 경제개발 정책에 힘입어 인프라 수준이 양호함. 또한 지연되고 있던 인프라 프로젝트들이 개시되며 외국인투자가 늘어나고 있으며 원유, 천연가스 등 풍부한 자원을 바탕으로 향후 자원 국제가격 회복 시 성장잠재력이 보임.
- 2013년 5월 나집 라작 총리가 재선에 성공한 후 현재까지 안정적으로 정국을 운영하고 있으나, 불법자금 수수 의혹은 정권신뢰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음. 한편 말레이계를 우대하는 부미푸트라 정책으로 인해 소수계의 불만이 큰 상황이나, 대규모 소요사태로 인한 사회불안 발생 가능성은 낮음.
- 중장기 차관 위주의 양호한 외채구조 등으로 외채상환에는 단기적으로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되나, 최근 외채지표가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함.

책임조사역 김재원 (☎02-6255-5716)

E-mail: jaewonk@koreaexim.go.kr